

아시아

◆ 인도, 경제특구(SEZ) 추진 현황

인도 정부가 수출증대를 위해 기존의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 zone) 및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보다 더한층 실질적인 보세지역인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SEZ)의 설치를 추진한 지 2년이 지났으나, SEZ 개발업체들은 여전히 토지취득과 재원조달상의 문제점 및 불확실한 정부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개의 SEZ 설치 추진

작년까지 6건에 불과하던 인도의 SEZ 추진사업은 현재 12건으로 늘었으나, 이 중 4건만이 진척을 보이고 있을 뿐 다른 건들은 주로 토지취득 문제로 인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 Gujarat 州의 Positra SEZ는 총면적 25,000헥타르 중 1단계인 6,500헥타르의 토지 취득이 진행중이다. 사업주인 GPPI社는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1차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96%(약 10억 달러)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IT, 의약, 유통 부문 등의 100여 개 국제투자자들과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GPPI社는 전력 및 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각각 Bombay Suburban

Electric Supply 및 호주 계열의 Voest Alpine Group과 합작을 추진하고 있다. SEZ 개발사업 입찰에는 India's Larson & Toubro, 현대, Sumitomo, Skanska, Nordic Construction, Mitsubishi 등이 참여하고 있다. GPPI社는 향후 20개월 내 SEZ를 개장하고 5년 이내에 기초적 인프라 구축을 기대하고 있으나, 토지취득 완료가 관건이 되고 있다.

Tata Steel社를 개발 주체로 하는 Orissa州의 Gopalpur SEZ는 World Bank가 수립한 SEZ 개발계획에 따라 1,400헥타르의 토지취득을 완료하였으며, Orissa州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알루미늄, 티타늄, 크롬 등의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총 40억 달러에 이르는 3~4개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러시아계 기업이 7억 달러의 티타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미국의 Aluminium Corporation도 동 SEZ에 종합 알루미늄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인도 도시산업개발공사(City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를 개발 주체로 하는 Maharashtra州의 Dronagiri SEZ는 최근 미국의 회계법인인 Arther

〈표〉 인도내 경제특구(SEZ) 개발 현황

지 역	개 발 주 체
Positra(Gujarat)	Gujarat Positra Port Infrastructure(Nikhil Gandhi)
Nanguneri(Tamil Nadu)	Tamil Nadu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y (state government)
Babohi(Uttar Pradesh)	State government
Kanpur(Uttar Pradesh)	State government
Greater N.O.I.D.A.(Uttar Pradesh)	State government
Dronagiri(Maharashtra)	C.I.D.C.O.
Kakinada(Andhra Pradesh)	Andhra Pradesh state government
Paradeep(Orissa)	Orissa state government
Gopalpur(Orissa)	Tata group
Kulpi(West Bengal)	W.B. state government
Indore(Madhya Pradesh)	Madhya Pradesh state government
Hasan(karnataka)	Karnataka state government

자료 : EIU, Business India Intelligence, April 2002.

Anderson<sup>6)</sup>을 통해 향후 10년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토지는 제1단계로 1,400헥타르를 취득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를 맡은 Tata Economic Consultancy Service社는 현재 몇몇 현지 거주자의 이주 문제만이 남아 있다고 발표하였다.

**불확실한 정부정책**

SEZ의 설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SEZ 설치에 대한 정부정책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당초 인도 정부는 SEZ를 통한 수출증대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정부내 관련 부처의 반대로 일관된 지원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Yashwant Sinha 재무장관은 지난 2월 28일 발표된 2002회계연도 정부예산안에서 SEZ 설치를 위한 개략적인 정책을 언급하였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

적인 안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였는데, 이는 SEZ 설치에 대한 정부관료들의 강한 저항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례로 재무부가 이미 발표한 SEZ 지역의 소비세 및 수입관세 면제기간 연장조치에 대해관세청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관세청은 경제자유화가 밀수를 조장할 수 있고 세관검사가 없을 경우 수출송장의 인위적 가격인하와 수입송장의 인위적 가격 인상이 만연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내 반발로 인해 Sinha 재무장관은 현재 10년인 SEZ내 소득세 면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유보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 정부는 노동 및 은행 부문에 대한 SEZ 지원정책을 수립하였는데, 우선 산업분쟁법을 개정하여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이던 고용자 해고 문제에 대해 근로자 1,000명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6) Arther Anderson의 선정은 Arther Anderson 미 본사의 파산사태 이전에 이루어졌음.

록 하였다. 또한 SEZ 내의 은행 관련법을 완화하여 SEZ에서 영업하는 은행은 대출, 현금보유비율, 유동성비율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sup>7)</sup>

#### SEZ의 개장에 상당 기간 소요 전망

이와 같이 현재 SEZ의 설립은 토지수용과 재원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어, 성공적인 투자자 모집과 SEZ 예정지역 거주민과의 원만한 합의가 없이는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EZ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거주민의 비협조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SEZ내 기초 인프라의 건설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최초 SEZ의 완공과 정상적 운영에는 최소한 몇 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孫承鎬】

7) 그러나 인도 정부는 최근의 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자본계정의 루피貨를 미 달러貨로 완전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